

민주당이 만든 중소기업부



김승호 의원
시선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민주당이다 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중기부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의 81%를 관장하는 중기부의 역할과 철학, 비전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내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켰지만 이후 중기부를 둘러싼 시각은 예상보다 싸늘했다.

중기부가 중기청과 뭐가 다르냐는 평가가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위해 돈만 나눠줬지 정책을 기획

하고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역할은 언급생심이다. 중기부를 만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에 소홀했다는 불만도 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크다.

새 정부가 중기부 조직을 흔들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일부에선 중기부 조직을 폐쇄 소상공인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오동운 동아대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 정책 가짓수만 1822개로 너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정책을 씨줄과 날줄로 잘 엮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융합하느냐도 중요하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18번째로 탄생한 막내 부처다. 하지만 예산(기획재정부), 노동(고용노동부), 산업(산업통상자원부), 환경(환경부), AI(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개혁(국무총리실) 등을 관장하는 거의 대부분 부처와 조율, 협업, 공조가 절실하다. 지방정부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땐 부처에서 만형 역할도 해야 한다. 중기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중기부 내부 조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승진이 빨라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직을 떠나다보니 경륜, 역량이 있는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 물론 외부 수혈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중기부 장관의 역할은 어느 시기, 어떤 부처보다 중요하다.

중기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3명의 장관을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채웠다. 특정 인물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후한 점수를 주긴 힘든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치인과 정통 관료 출신이 중기부를 이끌었다. 정치인 출신 장관 대부분은 자기 정치만 하다 갔다. 물론 태생이나 직전 직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부처보다 정책 대상이 폭넓어 소위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중기부 수장을 고민없이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로 오는 장관은 미래 중기부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내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실무는 차관에게 맡기면 된다.

/ada@metroseoul.co.kr



예탁원, 청소년 범죄 예방 돕는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HS효성, 현충탑 참배… 묘역정화 활동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HS효성 임직원 20여 명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독립유공자 및 임시정부 묘역 일대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HS효성



‘아메리카 갓 텔런트’에서 공연하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

/현대차그룹

스팟, ‘아메리카 갓 텔런트’ 무대 올라

현대차그룹 하루만에 15만뷰 달성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이 미국 NBC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텔런트’ 무대에서 단체 군무를 선보였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5만 이상을 돌파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도 증명했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스팟 5대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 무대에 올라 단체 군무를 선보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공연 중 일부 기기가 멈추는 상황도

있었으나, 기술로 이를 복구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스팟은 퀸(Queen)의 ‘돈 스탑 미 나우(Don’t Stop Me Now)’에 맞춰 움직임을 수행했다. 다섯 대의 로봇은 집합과 분산, 좌우 진동 동작 등을 통해 제어 정밀도를 확인시켰으며, 일부는 로봇 팔을 활용해 가사에 맞춘 제스처를 구현했다.

공연 후 이어진 평가에서 심사위원 4명 모두 ‘예스’를 선택하며 스팟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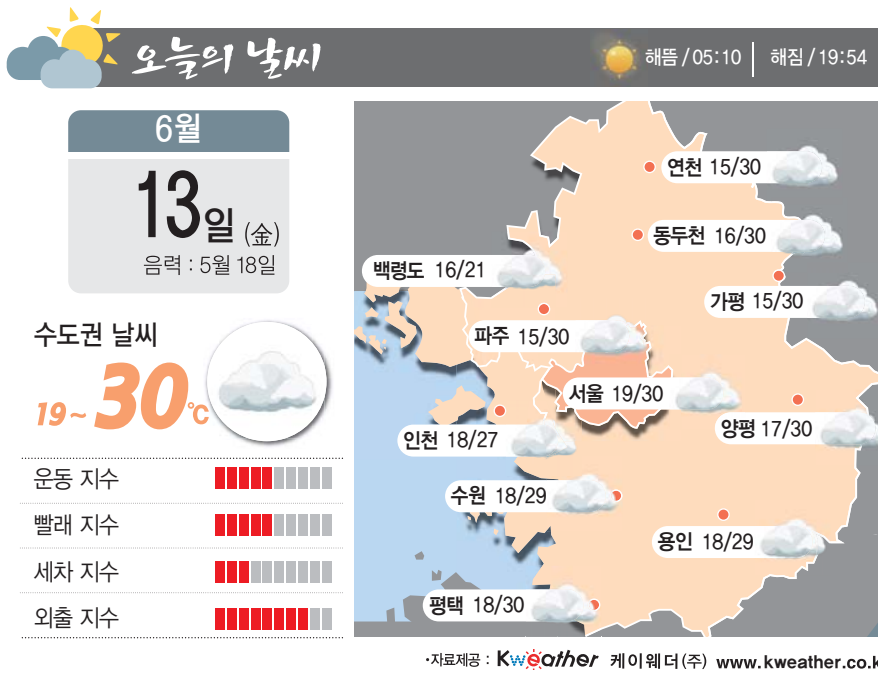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편집국장 겸 경제부장 권대경
◆한양경제 ▲주필 이효성

부음

▲김순자씨 별세, 운송배(정송군 보건의로 원장)씨 장모상 = 11일, 안덕장제식장(남청송농협) 1호, 발인 14일. 054-872-1123



쿠팡, 중소 협력사 우수상품 알린다

CPLB, 디지털 유통·물류 대전 참가 30개 협력사 부스 등 제공… 홍보 지원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조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30개 중소 제조파트너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쿠팡에 따르면, 약 30개 쿠팡 PB 제조사들은 행사에 참여해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 제품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CPLB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30개 협력사에 전용 부스와 전시대 등을 제공하고, 각 업체가 자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PLB 전경수 대표는 “산업부 유통



쿠팡 CPLB가 지난 11일 중소 제조 파트너 30개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5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에 동반 참가하고 있는 모습 /쿠팡

물류 대전을 계기로 중소 협력사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CPLB는 중소 협력사들과 더욱 협력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유한양행, MSCI ESG평가 ‘AA 등급’

2년 연속 등급 상승… 인재경영 주효

유한양행은 글로벌 금융정보 기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1년만에 AA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유한양행은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이직률 기록,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인재경영 부문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준법경영 위반 문제의 부재, 의약품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롯데온, 23일 ‘오감만족 페스타’ 개최

경남 지역 우수제품 할인

롯데온이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이달 23일부터 경상남도 오감만족 페스타’를 열고 소상공인 판로 확장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온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남 지

역의 우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소개한다.

대표 행사 상품으로는 국내산 재료로 만든 수제 꼬막무침, 열무 물김치, 경남 하동울림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국산 햅쌀 ‘알토리 맛밤’ 등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뉴발란스 코리아 박성희 신임대표 선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박성희 대표(사진)를 한국 법인 ‘뉴발란스 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희 대표는 지난 1997년부터 글로벌 스포츠 의류 브랜드 산업에서 약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업계 전문가다.

뉴발란스 코리아는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콜마비엔에이치, ‘콜키퍼 프로그램’ 도입

콜마비엔에이치가 ‘콜키퍼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콜키퍼는 조직 구성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대표이사 메시지를 실무진과 공유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콜마비엔에이치

유한김벌리 ‘그린캠프’ 참가자 모집

유한김벌리는 대학생 환경 리더 양성을 위한 ‘2025 그린캠프’ 참가자 8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린캠프는 국내 최장수 숲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7년차를 맞았다. 올해 캠프는 유한김벌리, 생명의숲, 평화의숲,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2박 3일간 경북 안동·울진·봉화, 강원 동해 등 산불 피해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현장을 탐방한다.

/최빛나 기자 vitna@